

강진군, 하멜촌 커피 카페 운영 관광객 유치 나선다

특화 커피 개발 관내 영업자 보급
사업장 10개소 모집 200만원 지원
즉석판매제조가공 카페운영자 대상
군 지원 물품 적극 활용 비치 조건

강진군이 하멜촌커피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모집해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역 특화 음식의 일환으로 개발한 '하멜촌커피'를 관내 카페 영업자에게 보급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하멜촌커피 지원사업장을 모집한다.

하멜촌커피 지원사업은 하멜촌커피 원두와 드립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카페운영자를 대상으로 총 10개소를 모집한다. 지원비는 업소당 200만원이 지원되며 군비와 자부담은 각각 100만원이다.

지원 조건으로는 하멜촌커피 현판을 영업장에 게

시해야 하며 하멜촌커피 홍보를 위해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물품을 적극 활용하고 비치해야 한다.

원두와 드립백 중 취급 항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올해는 원두와 드립백 둘 다 취급해야 한다.

하멜촌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관광객과 손님 입장에서 취급업소에서 하멜촌커피 원두를 활용한 커피는 물론 선물용으로도 좋은 드립백을 함께 접할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된 셈이다.

사업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오는 17일까지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식품위생팀·061-430-3193)으로 제출하면 된다. 체인점의 경우 본사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커피문화 트렌드에 맞춰 하멜촌커피를 보급해 지역특화 음식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하멜촌커피 취급에 열정을 가지고 손님에게 최고의 맛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카페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멜촌 커피는 은은하게 올라오는 산미에 깊은 고소함이 특징이며 대중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블렌딩으로 오직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함평군 관계자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기 위해 습윤 작업을 하고 있다. 함평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함평군,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총 280동 대상으로 사업 진행

함평군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에는 주택 190동, 비주택 7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 등 총 280동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군은 이번 사업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352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다. 비주택의 경우 최대 200㎡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

층(한부모·다자녀·장애인 또는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21일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평군은 지난해 실시한 슬레이트 실태 조사 결과 관내 약 600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환경부의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계획에 발맞춰 향후 10년간 슬레이트 건축물 완전 철거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주민 건강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등 계절근로자 확대

올해 상반기 1137명 배정

해남군이 결혼이민자들의 가족 및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로 1137명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상반기 737명 대비 대폭 증가한 인원인 것으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농작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기피현상으로 매년

도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상시 접수를 받는다.

초청 대상은 전남과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으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으며 국내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사실 등이 없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외국인이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연장된 8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성실 근로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며 "안정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충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담양군, 성인문해교육 '문해교사' 공개모집

연수수료증·담양거주민 대상

담양군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한글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문해교사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9일 담양군에 따르면 성인문해교육이란 한글 교육을 기본으로 태블릿PC를 활

용한 금융 및 키오스크 활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문해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문해교사의 자격요건은 문해교육사 자격증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진흥원에서 실시한 문해교원 연수수료증이 있고,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

민이어야 한다.

접수는 담양군 누리집 및 담양군평생학습정보방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수기가 아닌 한글 등 컴퓨터로 작성한 파일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 인문학교육팀(061-380-318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연장 운영



신안군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신안군 제공

신안군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열리고 있는 '섬 겨울꽃 축제' 기간을 오는 2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축제는 당초 오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애기동백꽃 절정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겨울꽃이 2월2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연장된 축제기간에 설 명절이 포함돼 있어 관광객과 귀향한 향우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섬 겨울꽃은 3km에 걸쳐 조성된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내 애기동백 숲길을 따라 붉은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다.

명품의 가치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분재도 전시돼 있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004섬 분재공원 내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겨울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엽서쓰기, 소원지쓰기와 저녁노을 미술관에서 소원 편지 쓰기 및 동백 그림 그리기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아 에어돔에서는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카페와 휴식 공간도 마련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축제 기간 빨간색 옷(상하의)을 착용한 관람객은 입장료 혜택 이벤트를 맞을 수 있다는게 신안군의 설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펼쳐지는 '섬 겨울꽃 축제'에서 아름다운 애기동백꽃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즐기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